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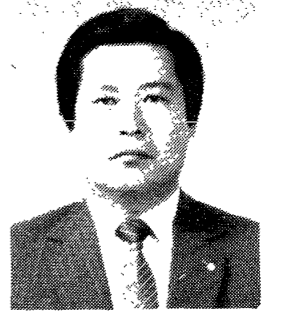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80-3491-2 05611770-2227 하이텔 (ID: dg.press)

## 동/문/칼/럼

### 미래를 향해 도전하자



5월이다. 5월은 젊음의 계절이기도 하고 교정의 울림과 낭만과 정열이 넘쳐 흐를 것이다. 교정의 울림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나의 대학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한데 모아 강자 나라의 기둥이 될 후배들에게 당부의 몇마디 전할까 한다. 첫째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이란 또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옛날에 사람은 일생동안 공부를 하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대학시절이 아닐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최적이기 때문이다. 전문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방면의 책들을 읽어서 편협되지 않는 사고를 가질 때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목표를 세워서 생활하라라는 것이다. 매사에 목적이 없는 생활이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험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목표 설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연 계획을 따라야 한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루어질 때 얻는 성취감은 누려본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다. 간혹 그 계획에 착오가 생기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 단계의 성취를 위하여 인내와 절제로서 이겨나가야 한다. 노력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고, 인내없는 열매는 달지 않다. 셋째,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큰 사람이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고한 인격을 겸비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위치

를 차지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인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결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인-의-예-지-신-즉, 마음이 어질고, 의로운 일에는 굽히지 않으며, 예의 바르고 매사에 슬기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바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큰 사람인 것이다. 후배 여러분! 이와같은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자. 성취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만이 이룰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프로 근성이 있어야 한다. 도전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고, 노력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는 것이다. 뼈를 깎는 아픔과 각오를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먼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21세기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다. 젊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이 있기에 이 나라의 장래는 밝아졌다. 동국의 후배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모교는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명문사학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후배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황민환

(한국감정원 북부지점장·행정 67급)

### 캠퍼스 차 없는 날, 교통난 해결 질서정신 자리매김 하길 대중교통수단이용·도보의 취지

"매일 첫째 주 목요일은 교내에 차없는 날"이라는 대외보와 플래카드를 보았다. 몇 자치회이름으로 되어있는 그 선전문구들은 한번쯤 꼼꼼히 생각해볼 필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마지막 주 목요일은 차없는 날"이라는 캠페인을 보았고 참 괜찮은 생각이었다. 그것은 서울캠퍼스의 이야기였다.

자전거 10부제가 실시되고 교통문제를 해결책 마련에 급급한 서울의 경우를 볼 때 학생들의 자발적인 교통 캠페인은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우 캠퍼스의 경우는 이러한 캠페인이 좀 생소하고 뭔가 문제점을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 우리학교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를 타고 다니는 교수·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데 매일 첫째 주 목요일을 차없는 날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일 것만

백부기 (삼경대 정보산업학과)

### 한국통신 노조 탄압을 지켜보며 지지체 대비한 공안정국 형성 노동운동탄압...민주노총흐름 저지의도

한국통신에 민주노조가 출범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공작은 일방적인 탄압으로 올 단체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변방한 단체협상 한번 못해보고 공작의 정세-해임 결정과 정부측의 5명 구속, 46명 검거령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노사 자율교섭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한국통신 노조측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매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 노조가 제시한 '공공부문 임금 3% 가이더라인 철폐와 통신 분할 반대, 통신 부문의 개별 민영화 방침 반대'가 국민적인 호응을 받아, 이번에는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한국통신의 파업은 국가전복 행위'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출범한 현 한국통신 노조의 날카로운 제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무시하고 공작의 무성하

고 불상식한 사법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다. 이제 현 법에 보정된 노동자의 단체행동마저 '국가전복' 운운하며 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주들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노동법과 법을 뒤로잡고 삼자개입 금지, 복수노조 금지, 정부의 직권중재 등 독소 조항들을 통하여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해 왔다. 올 6월초로 집중된 노동자 임금-단체협상 투쟁에서 정부는 악법과 공권력으로 노동운동을 억누르고 있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핵심간부 전원 수배령을 내렸으며, 대규모 사업장인 현대그룹노조총연합에 대한 끊임없는 협박, 한국통신을 필두로 한 공공부문 노조대표자회의에 대한 집합과 검거령으로 올해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김원산 (법정대 법학과)

### 전국 교사 대회를 다녀와서 제자 손 잡고 참가하는 미래 내 모습 다짐

친구에게 그동안 잘있었다. 바람에 지는 꽃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라던 그 피빛 오월도 어느덧 끝자락을 보이고 있다. 올 오월을 자네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 지난 28일 나는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 전국 교사 대회를 다녀왔네. 같이 교사가 되자고 했던 자네가 벌써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 써볼까 하네.

설레임으로 참석했던 교사대회에서 내가 본 것은 아이를 손 잡고 오신 선생님, 사오십의 나이에도 출몰주시면서 웃는 선생님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전교조 6년동안의 모진 탄압을 이겨낸 주름살과 누구도 더러하지 못할 전진만함이 가득했다. 그 미소가 상당히 부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도 이상심년 후에 저런 미소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입으로만 참교육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 그래서 난 더 이상 나의 희망을 먼 미래의 일만으로 그리지 않기로 했다. 지금의 내 삶속에서 하루하루를 뜻있게 살기로 했다.

참! 며칠전에 참교육이 무어냐고 물었지.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아서 당장 대답할 수 없었지. 하지만 이런 행사가 대중제 시기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서 대학의 올바른 문화의 중심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대중제 문화의 장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큰 사고현장에 성급과 성원을 높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해마다 구세군 남비에 거금을 넣고 가는 사람도 있다. 매스컴에 얼굴과 이름이 커다랗게 실리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우리 온방울 주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겠다.

주진환 (사범대 국교과)

### "사랑을 모읍시다" 봉사활동으로 올바른 대학문화 살려야

16일부터 온방울에는 '익서 대중제'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폐쇄적이고, 소비적 문화를 배격하고, 새로운 대중제 문화를 열어나가겠다는 취지 아래 법정대 학생회에서는 "사랑을 모읍시다"라는 이름 아래 심정별·백동별·남치별 어린이 돕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2박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들의 금주 같은 대중 축제시간을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한 법정대 학생회 집행들에게 감사 드린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심장병·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의 악몽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온방울 주인들이 대중제 기간동안 베풀어준 사랑으로 새 생명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특히

이 모금 운동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주신 온방울 교수님, 학생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대중제 시기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서 대학의 올바른 문화의 중심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대중제 문화의 장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큰 사고현장에 성급과 성원을 높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해마다 구세군 남비에 거금을 넣고 가는 사람도 있다. 매스컴에 얼굴과 이름이 커다랗게 실리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우리 온방울 주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겠다.

김원산 (법정대 법학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공간문제, 논리적 체계적으로 보도해야

지난호 동대신문(제1176호) '제33회 전국 고교문과 공쿠르 수상작' 특집은 오랜만에 고교생의 글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입상작품과 심사평, 입상자의 사진을 같이 실어 시각적 효과 및 작품성향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동대신문사측에서 마련한 '낙서장'은 신선함과 재미를 더했고 교생 실습기와 교생선생님께 보낸 학생의 편지는 4월 내내 교생실습으로 교생한 학우들에게는 공감대를 제공해 주고, 다른 학우들에게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입상자들의 소감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면의 '미국 남가주 동문화' 방문기사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있는 본교동문회를 동국인들에게 홍보,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자주 실리는 공간 문제 특히 동국관의 신설학과 학생회실에 관련된 내용은 별다른 진전없이 매번 똑같은 얘기를 조금씩 바꿔서 되풀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호 동대신문에는 이문제에 대한 학생측과 학교측의 의견 및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보도를 해서 다 갈릴 학우들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

백미연 (공과대 건축공학과·본사모니터)

### 잠깐 주목

본지는 6월1일부터 하이텔 동국대통신동호회(godgu)의 10번이나 신문사 ID(dgpress-dku 90)를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제보, 기타 의견등을 받습니다. 글의 성격, 목차의 학과, 이름, 연락처, 원고료인금액을 계좌번호 등을 명시해 주세요. (편집자)

### 목격골

#### 축하합니다

- 5월26일 캠프 94동기 모임을 축하합니다. - 00과 94학번
- 사단기 응원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 축하받은 민석이를 위해. - 복면 X
- 행정학과 축구우승!! MVP을 사형 좋겠다. 89, 92형님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축하형, 상수형도. Congratulations! - 지카본 경제학과 여학우
- 건준위 풍물패 판국 마당에서 1등을 했습니다. 수고한 건준위 풍물패 여러분, 특히 경제학과 4명의 여학우들 화이팅! - 지카본 경제학과 여학우
- 회계학과 91학번이 진호 생일 축하한다. 만세 만세 만만세 - 6월2일
- 에오라지의 연극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진야 수고했다. - 서울에서 전방향

### 수고하셨습니다

- 새벽별을 사랑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이번 축제기간 보여준 성원에 감사합니다. 새벽별 보러가자! - 형·향
- 작공영이 선배를 비롯한 남학우 여러분, 농구경기 너무 잘 하셨습니다. 왕 멋있었습니다. - 공영이
- 술래고 하나가 신문이 조금 늦게 나오네 그럼 이렇게 29일 탈공연, 30일 아리랑공연 수고하셨습니다. - 누군지 모르겠지용
- 선무인 여러분, 연무시범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 차장
- 판국 경연대회에서 예선, 최선을 다했던 한소리 6기들 정말 사랑한다. - 정말 사랑하는 사람
- 일문과 학우여러분! 일문인의 단결된 모습과 열심인 능력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함이무척 아쉽네요. - d-d

#### 알립니다.

- 전기공학과 체육대회 마니아

### 동/악/광/장

#### 그리고

- '89 4년에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대 가는 앞길에 밝은 내일 있오라 - 89 조재영
- 5월 대중제 F.O.D.E 1, 2학년 아우들 멋진 파트너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배양이 기도할께! - 배탕
- 학수 화이팅! - K.J.Y
- 잘나가는 자주회계(야) 머릿들이 늘러간답니다. 어디로 가나고요? 용인오르요. 27일~28일 용인이 불타겠군요 - 95학번 잘나가는 새내기들
- 성국의 수확여행 무사히 돌아오기를 환영합니다. - 은주
- 5월28일은 귀엽고 예쁜, 카드점의 가장 큰조의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주셨습니까? - 사회학과 교수의 2학년 일동

### 은방골

#### 축하합니다

- 성남선배 생신 축하드려요(6월2일) 건강하시구요! - 정보산업 후배들
- 사랑하는 손옥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줄게. - 국·경 은주
- 형진아, 재대 축하한다. - 상임이
- 6월2일은 의에 새내기 수영이의 배꼽 잘날날이래요. 모두모두 축하해주세요. - 누나가
- 한의대 한을 의대 한두래연합 풍물놀이 한마당을 축하합니다. - ?
- 승현아, 해피버스데이! - 회계과 1년 친철
- 진혁아 생일 축하한다. - 광철
- 관이션배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 '93 Acc
- 경제학과에 5월과 6월에 생일 맞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경제사
- 현일선배, 재동선배 생일 무지 축하해요. - 안전제일
- 스누피야! 너의 귀빠진 날 진심으로 축하한다. - 국문과 94학번 원자폭탄과번개탄
- 승현아! 너의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단 선물은 없어. - 국·경女人
- 일문학과 3학년 서중애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창·오·환·경
- 영화아 생일 축하한다. - 땅콩이
- 지영이랑 태형선배, 시험 합격 정말 축하드려요. - 일문3 광숙이가
- 복영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공부 열심히 하세요. - 은혜가
- 수고하셨습니다
- 아비군 2일차 훈련받느라 수고했다. - 대표
- 준계 리그동안 연습경기한다고 수고하신 미식축구부원을 정말 고생많이했다. - insider 59
- 푸르튼 5월에 교생 실습하느라 바쁘게 지낸 친구들이! 모두 수고했다. - 중문과 땅콩
- 알립니다
- 슈메이리가 6월1일(木) PM5:00소강당에서 공연합니다. - 메리아 강
- 그리고...
- 광림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남날을 기억하자. 임대후에도 네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꺼야. - RICHARD
- 소낙비 16mm영화제작의 좋은 결과를 바라며 - 소낙비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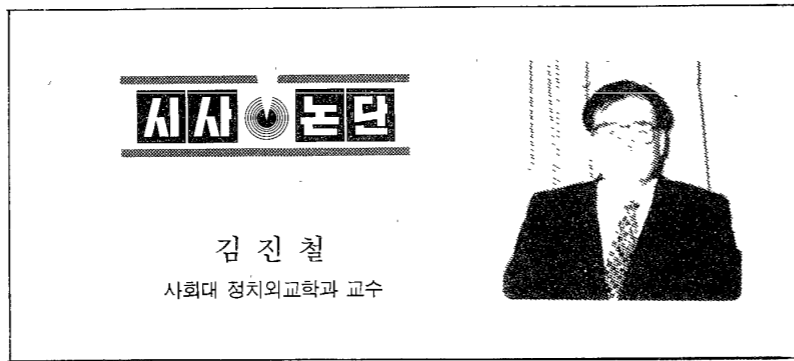
###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부쳐

# 국력만큼 당당히 우리주장 내세워야

최근 일련의 주한 미군의 연쇄폭행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급증하자 그간 미군범죄에 미온적이던 정부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부분적인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미군이 이땅에 주둔한 뒤 주한미군의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5건, 1년에 2천여건이 발생한다. 최근 폭행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방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단 이후 우리의 역사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군사력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고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상존하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를 위정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을 위한 '고마운 우방'으로 국민들에게 과대 선전해 온 결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이 관대해 왔던 것이 저간의 사실이었다.

더우기 한미협정의 불평등성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최근의 미군 폭행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형사재판 문제이다. 행정 협정이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형사재판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치외법권 인정하고 대미 예속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불평등조약이다. 실제로 우리가 주목하고 분노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행위자체를 가능케하고 정당화시키는 한미협정의 엄청난 불평등성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한미간의 총체적인 역관계의 불평등성을 법률적 형식으로 제도화시켜 재생산시키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과 평등성을 침해하는 굴욕적 협정이다.

광의의 행정협정이라 '협정'에 조약체결의 요건으로서 규정된 국회의 동의 절차, 행정부만의 행위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1966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그 원래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김진철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내에서의 합중국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부속문서'로, 이는 1953년 휴전 직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8·15해방과 더불어 남한에 거주한 미군은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군작전 지휘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미군당국에게 배타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한 '대전협정'과 1952년 5월 14일 미군을 포함한 통합사령부의 개인과 기관에 그들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대부분 포기한 '통합사령부와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이라는 격변기에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의 대내외적 위치를 격하시켰고, 이 수치스러운 협정은 향후 15년간이나 남한에서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50~60년대 미군들에 의한 한국인 살상, 폭행, 강간 등의 만행이 자행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반미의식의 고양과 항의, 규탄이 높아지자 1962년부터 한미협정의 실무자회담이 시작되었고, 1965년에 월남파병에 한국정부 동의를 하는 정치적 반대급부로 한미협정이 1966년

체결되게 되었다. 그러한 한미협정은 미국의 고자세와 한국정권의 비자주성으로 인해 불평등한 내용으로 채워지며, 그 법외 재판관할권 문제부터 노동권, 물품조달, 보건과 위생문제 등 31개 조항에 걸쳐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다. 행정협정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여, 한국 영토의 어느 곳이라도 미군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약 제6조에 의하면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근거해 행정 제4조1항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손상, 자연파괴 등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의무가 면제되며 행정 제6조 1항과 2항에서는 한국정부와 기타 행정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수송, 통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익사업과 용역에 있어서 우선사용권과 할당의 요구권을 지닐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미군기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들도 노동3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에 의해 기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고용주의 단체행동권은 원천봉쇄하고 인사권의 전횡으로 감연이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3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또한 통상과 관세에서 과격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보건과 위생문제에서도 한국정부의 협조를 명시할 뿐 미군의 의무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한미협정 자체가 한미간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불평등한 조약임은 명약관화한 이상 차제에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주권국가로서 호혜평등에 입각한 협정의 전면시 개정 불가하다. 그러나 법관계의 불평등성이 법관계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간의 전면적인 불평등성의 해소없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한미관계의 연속성을 타파하고 주권국가로서 자주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위상 정립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력이 신장된 만큼 한미협정에서 구태를 벗고 당당히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야 하며, 해방 이후 슬하계 유린된 한국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의 대미통상협상에서 처럼 양보와 저자세로 일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용무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국민들도 미군범죄에 접하여 일시적 흥분이나 충동적 규탄에 머물러 말고 한미관계의 구조적, 역사적 재인식과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권리를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주의의 함양을 기대해 본다.

## 사설

### '95년 '통일원년' 돼야

올해는 해방된지 50년이다. 분단 50년을 맞은 매우 의미깊은 해이다. 분단 반세기를 넘기지 않았다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호기라고 볼수있는 지금의 시기가 국내정세와 정부측의 태도를 볼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자체 선거를 대비한 공안분위기 조성은 국민적 통일열기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권의 통일정책은 상황과 담판자에 따라 변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정책의 목표 또한 정권안정화에 기반한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 시기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94년 김영삼대통령은 북한체계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정책을 공표했다. '통일비용'운운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남북의 민족적 결합에 비용이 거론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사찰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고 UN대북제재에 동조하기도 했다.

IAEA의 특별사찰요구에 북의 '자위적 조치 강구'를 대남도발적 행위로 규정, 라면사재가 열풍을 초래한 사건이나 김일성사후 조문 시비와 박종철장의 주사파발언에 따른 공안과동은 정권안정화에 기반한다. 최근 '휴전선 긴장고조'도 마찬가지이다. 휴전선일대의 특별한 상황은 없으며 북한 군인들은 모심기 하고 있다는 것이 '위성'턴 타임즈에 보도되어 수세에 몰린 민자당이 정치상대통령은 북한체계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정책을 공표했다. '통일비용'운운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남북의 민족적 결합에 비용이 거론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사찰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고 UN대북제재에 동조하기도 했다.

이제는 6월3일 어떤 목적과 경로로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6·3조국통일과 일본군주주의 부활반대를 위한 남북해의 청년학생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의 단시일내에 준비된 범대회와 달리 일상적인 통일사업,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중적으로 확산한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한총련은 통일선언에 대한 백만학생의 토론과 합의, 서명운동과 더불어 '통일방안 대토론회'와 '북녘학우에게 편지쓰기'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6·3대회'는 '95년을 남북연대운동, 통일운동 대중화 실현의 유력한 계기'로, '남북화해와 단결' '통일방안을 합의 확정계획을 갖는 자리가 될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있다.

통일은 단시일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준비되고 논의하는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본교의 지난 대동제기간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된 '통일방안 대토론회'에서 우리는 참가했던 이들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논의가 활발해야하며 '6·3대회'도 그속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뿐 아니라 통일운동의 기록제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 실험실습실 통해본 공간문제

#### 전용실습실 부족...생활·학습공간 불일치

#### 효율적 활용 위해 학교·학생 의견교환

과학교과와 원흥관에 처음 들어서면 낯선 용어로 된 실험실습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광학 실험실·핵물리학 실험실·화학공학 실험실·전자회로 실험실·마이크로 실험실 등등 밖으로 보이는 실험실들은 화려하기만 하다. 본교 서울캠퍼스엔 이-공계 실험실실고도 각각의 건물에 PC실습실을 포함한 실험실습실이 총면적 1만4천4백62㎡에 1백99개(95년 3월 기준)가 마련되어 있다. 본교 현황을 잠깐 살펴보자. 4개 단과대학 학습 생활공간으로

쓰고 있는 동국관엔 실험실이 거의 전무하다. 경상대 PC실습실과 정보관리학과 실험실이 있을뿐이다. 해화관은 30여개의 실험실습실이 있다. 가정교육과와 지리교육과의 실험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학과편 10여개가 마련되어 있다. 본관은 연극영화학과 연습실로 12개정도 있고 명진관이 하나, 과학교과와 원흥관이 그 나머지를 포괄하고 있다. 과학교과와 원흥관에 실험실습실이 밀집되어 있는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밀집되어 있는만큼 그 효율성도 높을지에 대해

선 부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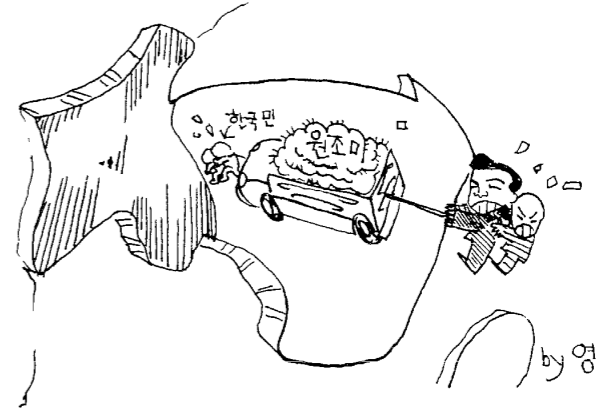
원흥관은 증축되었던 순서대로 1관, 2관, 3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80여개의 실험실과 실습실이 분포되어 있는 원흥관은 9개의 공학계열 학과의 생활공간이다. 건물전체중 강의실을 다스겼기때문에 효율성도 실험실습실이 많지만 공용실험실과 실습실은 2개밖에 찾을 수 없다. 공과대학 학생회장 김성현(신공 4)군은 "실제 실험실 사용은 몇몇과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강에서 실험실이 타과에 비해 많이 들려있는 것은 학과평가의 영향도 있다"며 몇몇학과를 제외하고 실험실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나마 있는 공용실험실이 신입교수 세명의 자리가 마련돼 제대로 실험을 못하고 있고, 대학원생들이 주로 실험을 해 실험실이 부족한 학과는 거의 실험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과학교과를 대부분이 교수들의 실험연구실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험실은 3개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곳은 이-공계 1학년 전체 학생들이 물리·화학 실험을 하느라 실재없이 돌아가고 물리실험은 명진관 3층 '물리실험실'에서도 이뤄지는 형편이다. 현재 1학년 컴퓨터실습은 해화관 1층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국관에서 명진관에서·원흥관에서·학림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해화관으로 달려온다. 각 건물에 공용실험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학림관이 사범대, 명진관이 문과대·이과대의 생활·학습공간인 것처럼 각 건물이 특강단과대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리 넓지 않은 캠퍼스지만 강의의 받으러 자기의 생활공간을 떠나 타대학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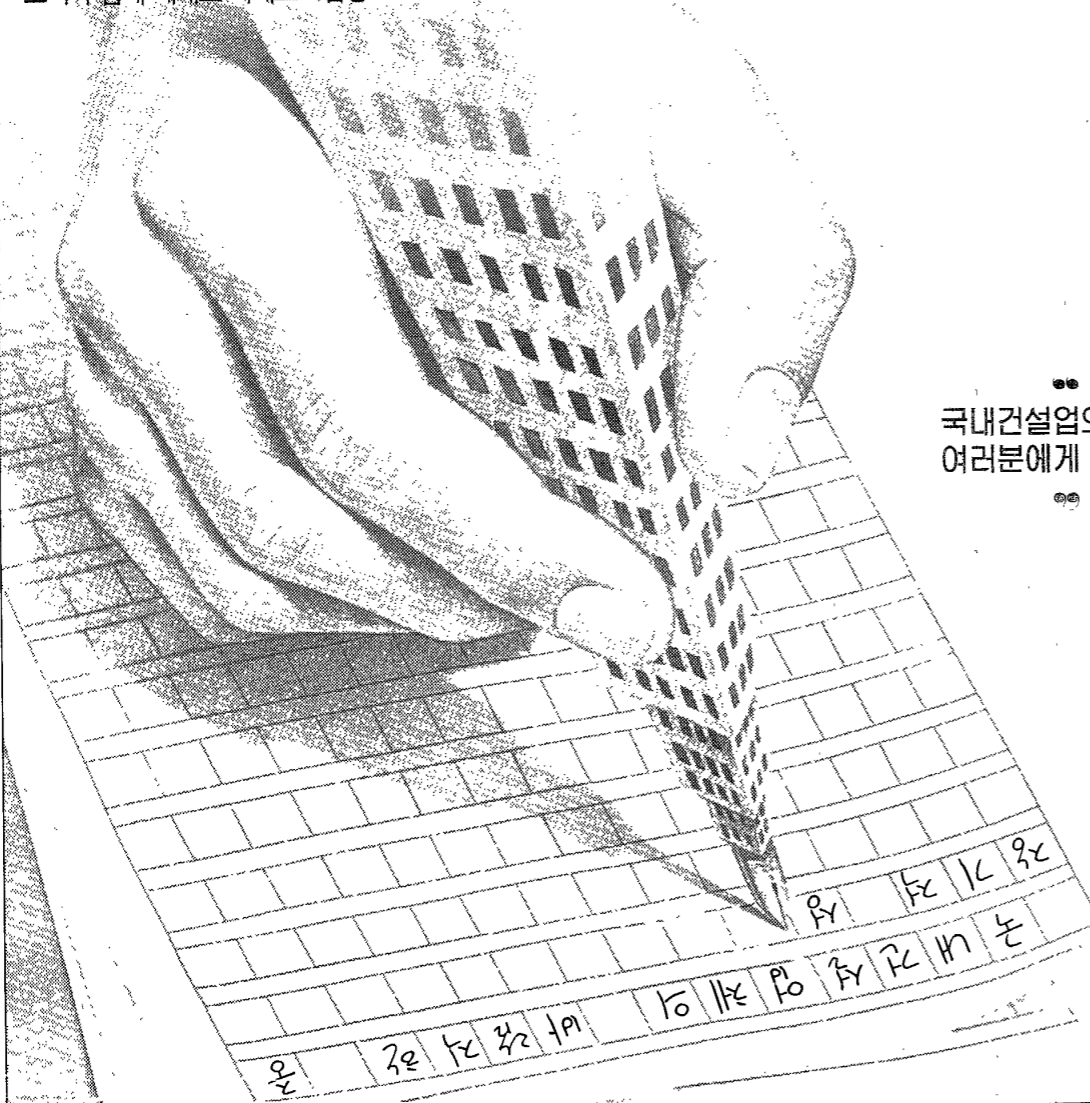
물로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공대는 원흥관에 80여개의 실험실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인해 3천여명의 공대 학생들은 학림관으로 강의를 받으러 간다. 실제 공대 1학년 전체 학생은 일반수학을 학림관에서 강의를 받고 있으며 공대 전공강의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학림관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생활공간과 학습공간의 불일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험실습실이 부족한 자연계 학과는 자연과학 캠퍼스 이전이 계획되고 있다. 각 단과대 전용 컴퓨터 실습실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상에서 비롯된 계획이긴 하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학교·학생들의 의견교환이 아쉽기만 하다. (곽주영 기자)

## 동국관 평

이영일



###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국내건설업의 세계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 제4회 삼성「건설논문상」현상공모

삼성건설은 건설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통해 국내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국내 및 해외 유학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 논문을 폭넓게 공모합니다.

### 공모요강

- 참가대상**
  - 국내 및 해외 유학중인 대학(원)생
  - '95년 8월 31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
- 응모기간**
  - 1995년 5월 21일~8월 31일
- 응모주제(8개 주제중 택일)**
  - 국내 건설업체의 바람직한 중장기적 성장모델에 대한 제안
  - 국내 건설업체의 선진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미국, 일본, EU 등)
  - 국내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관리기술 정립 방안
  - 국내 협력업체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 유도 방안
  - 국내 건설기술력의 현황 분석 및 향후 바람직한 육성 방향(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C.M, P.M 등 각 분야중 택일)
  - 국내 건설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장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 21C에 대비한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
  - GR에 따른 건설업체의 환경문제 대응 방안
- 응모요령**
  - A4용지 30~40매 내외 분량으로 워드 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원고용지나 학교명이나 표시된 리포트용지는 사용하지 않음)
  - 원본 및 사본 2부씩 3부 제출
  - 제약사항 및 통상 온라인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시
- 시상내역 및 수상자 특전**
  - 대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부상(시제)
  - 우수상 4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부상(시제)
  - 장려상 5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부상(시제)
  - 특전
    - 우수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일본 견학 기회(3박 4일) 부여 및 당사 입사 희망시 우대.
    - 년 해외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희망에 따라 국내 왕복 항공권 제공으로 대체 가능.
    - 대외 수상자 전원엔 대상으로 친목회를 결성하고 정기 모임 지원 및 회사와 유대관계를 갖도록 함.
- 입상자 발표**
  - 1995년 10월 14일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 시상**
  - 1995년 10월 18일(삼성건설 창립기념일)
- 제출처**
  - 유선번호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라트호텔당 강남사점 1450 삼성건설 기획팀(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엔 도착분에 한함)
- 기타**
  - 수상을 하지 못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15만원)
  -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함.
  - 국내외 저사나 논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해외 유학생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 527-1740~4, 1836)
- 작품심사**
  - 1차 : 삼성건설 자체 심사
  - 2차 : 삼성건설이 위촉하는 각 주제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방북 언론인 이충렬씨 강연회를 통해 본 북한여행

북한주민 심성 소박함·따스함 간직하고 있어

컴퓨터 전시관·팔삼공업품등 경공업 분야 발전 위한 노력 엿보여

방북언론인 이충렬씨 초청강연회가 지난 28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주최로 외국어대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통일을 위해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아있는 동질감을 회복 시키는 것은 언론인의 몫이다.

"아직도, 북한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 것"을 병하는 연설 내용으로 경공업과 전시품종에서도 '8.3경공업품'이 다수를 이루었다.

버튼의 경공업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으로 씌는 지혜'가 더 발달한 듯 했다.

조하면서도 철저히 김일성 주석 중심의 역사관으로 객관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세번째 여행지는 모란봉 제일 인민 종합학교이다. 선배들이 쓰던 현책을 물려 받고 나무로 된 복도와 그곳을 맡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70년대초반의 모습을 연상케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개성의 문화유적지였다.

고려 박물관에 접이 복원되어 있고 탑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문화재 관리방법상 분명 문제가 많은 부분이었지만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이전된 채 복원되고 있었다.

이씨는 이상의 평양, 개성, 신의주등의 여행으로 "북한은 지방과 평야간의 발전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귀결점을 찾았다고 한다.

방북언론인 이충렬씨는 마지막으로 몇 불었다.

통일을 위해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아 있는 동질성을 회복시켜 북한 주민과 하나될 수 있는 화두를 만드는 것은 언론인들의 몫이라고.

사회단신

'정치는 코메디가 아니다'

이총재,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민주당 내분 사태는 28일 이기택총재가 총재직 사퇴 의사를 반복함으로써 극적으로 수습됐다.

총재직 사퇴의 반복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현 시점에서 총재직 사퇴를 감행할 경우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총재직 고수'쪽으로 방향을 튼 전환점은 27일 밤 북야현동 자택에서 열린 대책회의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택 총재는 28일 오후 북야현동 자택 정원에서 가진 회견에서 '국민의 당원'에 대한 부끄러운 심정과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퇴 의사를 반복하며 부당감을 감추기 위해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이기택 총재의 당부복귀로 민주당은 거센 파도가 친 후 고요한 바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타고 있는 듯 하다.

(사회부)

◆서평 - '현대 북한의 이해'와 '조선노동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재비판적'이란 새로운 인식론... 혼란 야기 체제기원·형성과정 총체적으로 다룬 북한 연구길잡이

최근들어 북한연구는 방편으로 부터 자유로운 하나의 학문적 영역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석들이 소개되고 북한 체제의 형성과 전개과정 및 변화 전방이 논의되고 있다.

본문에 북한 문헌의 담화분석, 주체사상의 해부과 비교분석, 김일성과 김정일 분석, 분단구조와 북한정치의 변화 과정 등을 다루고 있다.

론 속에는 비판적 접근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가 과거 일부에서 벌어졌던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비판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는 이해하지만 굳이 내재비판적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으로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자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너무 단선적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사회주의의 생존조건이 현재의 주체사상과 유일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데 역사비평사에서 잇달아 출간된 이충렬의 '현대 북한의 이해'와 '조선노동당 연구'는 바로 그러한 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가 사용하는 몇몇 중요한 개념은 목자를 자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가 출간 사용하고 있는 '단일지도 체제', '유일지도체제' 등의 개념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북한의 이해'와 '조선노동당연구'는 기존 북한 연구서종 광범위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실사구시 가 구현된 최초의 저작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이 충실히 반영된 가장 최근의 연구서로서, 그리고 본격적인 북한연구의 길잡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분석하는 영역은 다분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층위 중심이긴 하다. 물론 저자가 경제적 층위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지 않았지만 다소 미흡하게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저자의 논리적 치밀성

'현대북한의 이해'는 저자가 연구과정에서 각종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것이고, '조선노동당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김 용 현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동약로

무관심

"시기가 너무 늦어서 힘든일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기왕이면 좀 더 일찍 가서 바쁜 일손을 도왔다면 좋았을텐데..."



한층원 출판사가 5월초로 앞당겨짐에 따라 매년 5월초에 있던 농활은 한달가량이 늦어졌다. 농활이 단순히 일손을 돕는 것이 아니라 농촌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농민들과의 대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왔다고 전체 농민이 반기는 마을에 비해 농민회나 마을장 몇 분만이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

비해 농민회가 있는 마을이라고 별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순수히 일손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왔다고 전체 농민이 반기는 마을에 비해 농민회나 마을장 몇 분만이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

농민회가 막 지났으므로 농활의 기간은 예전의 3박4일에서 2박3일로 축소됐다. 26일 예정보다 1시간 가량이 늦어진 오후 3시경 학교를 출발한 농활대는 사전답사의 마비로 일정이 조금씩 늦어져 오후 8시30분경 마을에 도착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농활대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방송조차 할 수 없었다.

농민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농민회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적어지고 제약들은 많아지고 있다. 어느덧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런 농활은 농활지역이 바뀐 이후 처음 수행한 것이었다. 농활지역이 바뀐 때마다 그렇듯이 농활대원들은 그 마을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농민회가 없어서 농활의 성과물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활지역을 재조정 한다는 취지에 대해 농민회와 있는 마을이라고 별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었다.

시사영어학원 (SINCE 1961) TOEIC, TOEFL, C, AFKN News & Drama 청취반 HEARING, 시나미영어전국, TIME한국관련기사, 영작문 Korea Herald 사설, 신문종합, 기본영어, 취직영어

운전을 배우시다 30년 전통·성실한 교육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교육 ② 실습시간 자유선택 ③ 통학버스 무료 운행

대학생 하계연수 95년 여름! 삼양이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하계연수안내 ① 연수기간: '95. 7. 10(월)~7. 15(토) 1주간

### 과학에세이

## 과연 외계인이 존재할까? 5백만개 우주 문명사회 존재한다는데...

에전엔 스타워즈란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휩쓸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요즘은 스타 게이트란 영화가 비디오테이프 순위 상위 랭크에 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만큼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좀더 색다른 외계인의 존재를 동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과연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인가? 우주란 거대한 공간속에 지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넓은 공간속에 단지 지구에만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인가?

가끔씩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외계인이나 UFO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기사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과연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더구나 개중에는 합성사진이나 장난으로 외계인을 보았다고 하는 허위 보도가 있어 우리들의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한다.

우리들은 보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열한다. 그러나 우주인의 존재를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는 없다. 객관적인 추측을 통해 접근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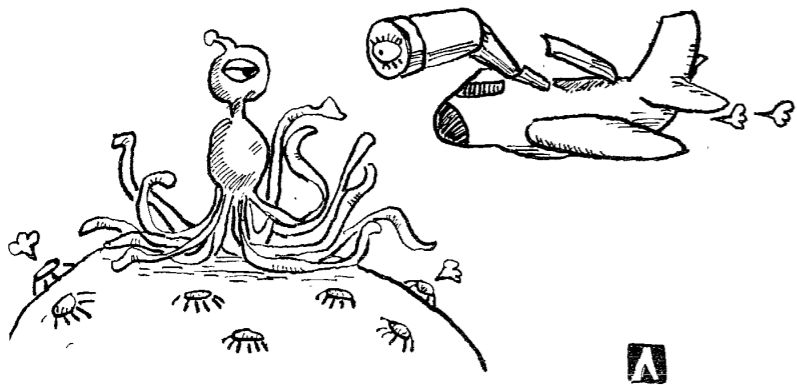
우선 별의 탄생 속도를 생각해 보자. 우주 속의 항성의 수를 약 2천억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 팽창 속도를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우주의 나이를 약 2백억년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1년에 약 10개의 항성들이 태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을 R이라 하자. 우리가 바라보는 별들을 거의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항성들은 대개 항성을 거느리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하늘의 별들의 반경도가 쌍성으로 쌍성은 항성을 거느리기에 부족하므로 태양계를 이들 가능성을 1/2로 두고 이 수를 fp라 하자. 이번에는 이러한 태양계 안의 행성들 중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접쳐보자. 중심의 항성과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고 항성에 대기인 있으면 태양열을 많이 못 받더라도 대기가 열

을 계속 가두어 항성내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만 예외적으로 생명이 살만한 환경을 가진 행성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따라서 그들은 가능성을 2~3으로 잡고 이것을 n로 둔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물이 발생할 가능성을 f, 생명을 가진 행성중 지적생물일 가능성을 f, 그리고 우주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가능성을 fi(이것은 아마도 지구와의 통신을 전제로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전제로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술사회의 평균 수명을 L로 두어 모두 곱하면  $N = R \cdot f \cdot n \cdot f_i \cdot L$  이란 우주 문명 사회의 수라는 공식이 유도된다. 이 공식은 미국의 칼 세이건 교수가 1970년 NASA Ames연구 센터에서 발표한 공식이다. 이 공식에 따르면 우주 문명 사회의 수는 약 5백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 넓은 우주 공간 중에 5백만이란 숫자는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문명이 서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추진하는 외계인과의 접촉 계획은 그대로 가능성을 더 가진 통신을 통한 접촉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외계인이 보낸 신호를 받고자 하는 OZMA Project가 실행되었고 파이어나어호와 보이저호를 통해 우리를 외계인에게 알리려 하였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칼 세이건 교수의 공식이 너무 지구인의 문명에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 보다 넓은 우주 안의 다른 문명과의 접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자 하늘을 바라보자. 어느날 갑자기 외계인이 타고 온 UFO가 당신 눈에 보일 지도 모르니까.....

### 오 세 신

(이과대 물리학과·자연과학연구원)



◇추요단체의 대표자가 모여 자신이 견해를 밝히고 토론한 이번 토론회는 통일을 향한 상승작용을 할것으로 보인다.

## ◇통일 방안 대토론회 초록 삶·통일운동 결합...통일 기반 조성 밑거름 통일이라는 하나의 지향점 가진 일꾼 토론회의 장

'통일방안 대토론회가 고유원(북한학과) 교수, 최성 아태평화재단 책임 연구원, 조성범 전국연합 자주통일위 국장, 정태훈 통일연립회의장 참석하에 23일 소강당에서 열렸다. 제27대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이번행사가 '올바른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현실적 수를 가능성'을 글자로 기초 발제에 이어 활발한 질의 응답 토론이 진행됐다. (편집자)

토론회는 기초발제 각 단체의 정정 발표 후 참석자간 실질적인 토론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질의·답변에서 중요한 것은 객석의 질의 내용이 통일 논의에 대한 각 단체의 개별적 입장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에따라 답변의 내용도 통일논의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은 자신의 단체(소속)의 견해를 밝혔다는 사실이다. 답변자의 발언내용이 마치 모든 단체의 입장이고 논의의 결과물인양 독자가 오해해서는 안되겠다.

질문: 통일 후 갖게될 민족의 체제는? 정태훈: 통일국가의 모습을 미리 단정짓는 것은 통일논의의 창조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논의의로서는 2체제를 포함한 국가형태인 연방제이다.

질문: 학생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이 감상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운동 수를 의지는? 정태훈: 반통일세력이 주장하는 '감상적 통일론'은 그들만의 자대일뿐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운동을 위해 많은 청년학생이 노력하고 있다.

질문: 전국연합의 '민족통일방안 합의기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성범: 남북의 모든 계층, 계급이 참여하여 진정한 통일을 발전시키기위한 민족성원단체의 합의기구이며 정부도 통일의 지반 확실하다면 당연히 포함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통일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시적인 것이다.

질문: 주범강대국의 영향과 경수로 문제의 의미는. 이선태: 과거 냉전시대의 달리 4대강국과 UN, EU등 다극화된 국제질서가 존재한다. 미국도 부분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현실적 수를 가능성을 글자로 기초 발제에 이어 활발한 질의 응답 토론이 진행됐다.

질문: 연방제의 필요성은? 이선태: 연방제는 통일논의의 핵심이다. 연방제를 최종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가연합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연방제를 이루기 위한 정확한 합의와 정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방제를 위한 전제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논의가 무의미하고 붕괴가능성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질문: 남북주도의 통일이란 최성: 북한의 체제가 조기붕괴한다는 기대에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말하는 보수수구세력의 견해는 절대로 반대한다. 북한의 체제·사상적 특수성이 비추어 보았을 때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북한의 수세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포용하면서 통일논의를 남한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북한의 체제가 김일성 사후 불안하다고 보는가. 최성: 북한은 70년대부터 권력승계 작업을 해왔다. 단기적으로 체제유지에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붕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붕괴되더라도 북한인민대중은 흡수통일보다 사상에 기초한 투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것이 흡수통일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질문: 관변단체나 재야단체의 과거와 달리 사회 전 계층·부문에서 다양한 통일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 추요단체의 대표자가 모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토론한 이 자리가 통일을 향한 상승작용을 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과 통일운동을 결합하고 통일기반조성을 우리 삶과 직결시키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부)

### 특별 보너스

#### 특별 보너스



윤 청 광

오늘 이 시각에도 지구의 곳곳에서는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살륙하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전투 가운데서도 가장 치사한 것이 종교전쟁이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고 자비로워야 할 종교가 본래의 모습과 본분과는 정반대로 가장 더럽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악랄한 집단 살륙극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기독교인들과 회교인민대가 만나지만 하문 총질을 해대고 저 비극의 땅 사라예보에서도 기독교도와 회교도들간에 가장 무자비한 보복살인이 성전(聖戰)이라는 미명하에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오교 하나뿐인 유일신을 만든 두 종교도들은 자신이 믿는 신(神)만이 옳은 뿐 다른 사람이 믿는 신(神)은 우상이요, 가짜라고 맹목적으로 단정하고 있으니 만나면 싸움이요 부딪치면 살륙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만 올리고 내 주장만 옳고 내가 믿는 신만이 옳다는 이 유일신사상이야말로 끝없는 인류의 비극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내가 있고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으며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인류공동체임을 일깨우는 지혜라고 할 것이다.

동국과 인연을 맺은 젊은이들은 캠퍼스에 머무는 동안 다른 대학에서 줄 수 없고 오직 동국만이 줄 수 있는 특별 보너스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나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동국이 주는 특별 보너스, 그것은 바로 불교의 지혜이다.

서양사람들이 하늘처럼 떠돌아다니고 믿어왔던 '신의 창조설'은 이미 무참히 무너져 오래이다. 신이 창조했다던 토마토와 감자는 오늘 유전공학에 의해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는 '한몸 두가지 열매'의 과학적 실증은 보여주고 있다.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반야심경의 '부증불감'의 지혜는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의해 '질량불변의 법칙'으로 실증된 지 이미 오래이다.

무자정 서양정권을 즐기고 맹신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나만 옳고 내것만 소중하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동국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에 불교의 지혜를 특별 보너스로 충분히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송작가

# “21세기를 정복할 해커를 찾습니다”

### 제6회 전국대학생 소프트웨어경진대회 및 공모전

젊은 두뇌의 창의와 열정, 전국 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및 공모전 — 장학금은 물론 졸업후 특혜의 기회까지 부여되는 이번 대회에서 정보사회의 진정한 주역이 되어 보십시오.

####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1 참가대상: 대학(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생  
2 참가방법: 개인 또는 단체  
3 대회일정

구분	일자	대회장소
신상서교부 및 접수	5/29(월)~6/17(토)	S/W 프로그래밍(서울), 지평 및 서스센터(여명)
관주	7/4(화)	한양대학교(서울) 10층 강당
지역대회	7/5(수)	대구 고려대학교 3층 프라자
	7/6(목)	부산 부산시공회(부산)
	7/7(금)	대전 라미온호텔 2층 대강당
	7/14(금)	서울 롯데호텔(드림) 3층 크리스탈홀
본선대회 및 시상	8/18(금)	서울 롯데호텔(드림) 3층 크리스탈홀

#### 소프트웨어 공모전

1 참가대상: 대학(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생  
2 참가방법: 개인 또는 단체  
3 대회일정

구분	일자	대회장소	
신상서교부 및 접수	5/29(월)~6/17(토)	S/W 프로그래밍(서울), 지평 및 서스센터(여명)	
관주	7/5(수)	7/2(토)	S/W 프로그래밍(서울), 지평 및 서스센터(여명)
작품상사	7/24(월)~8/11(금)		
당첨자 발표	8/12(토)		
시상 및 전시	8/18(금)	롯데호텔(드림) 3층 크리스탈홀	

4 심사방법: 상사는 2회에 걸쳐 걸쳐서 하계대, 개발의도, 파일 및 충분한 평가가 위해 개발자의 직접설명에 의한 심사를 합니다.  
5 응모분야: PC 및 Workstation에서 운용 가능한 모든 S/W  
6 작 작 작: 개발자에게 귀속되며,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상 및 기타

구분	개인 부문	단체 부문	공모전
대상	1 PC분야 W/S분야 장학금 및 부상 486PC Express II	1 장학금 및 부상 486PC Express II (2학년이상)	1 장학금 200만원 컴퓨터실용 486PC Express II
금상	1 컴퓨터실용 486PC Express II	1 장학 및 상해	1 장학금 100만원 컴퓨터실용 486PC Express II
은상	1 486PC Express II	1 장학 및 상해	1 장학금 50만원 컴퓨터실용 486PC Express II
동상	2 CD-VISION 2000		2 486PC Express II
장려상	7 3 카메라(AZ-330P)		3 CD-VISION 2000
공로상	1 관내 컴퓨터실용	최우수 장학위원의 지도교수	
현상	5 컴퓨터(HCPM330) 카메라(AF-MIN2)	대회 후원회	

서와 어깨를 겨룬 대학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컴퓨터실용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안 천 수

문의처 소프트웨어 프라자부 TEL: 527-4278~8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9 보림금고빌딩 6층

●부산지점: 051)807-1232 ●대구지점: 053)751-0304 ●광주지점: 062)365-2005 ●대전지점: 042)625-8722 ●울산지점: 052)261-3881

●서울지점: 02)601-1472 ●인천: 032)874-1472 ●안동: 054)851-1472 ●부산: 051)316-1472 ●대구: 053)751-1472 ●대전: 042)625-8722 ●울산: 052)261-3881 ●충청: 041)271-1472 ●전남: 061)271-1472 ●전북: 063)75-1472 ●제주: 064)58-1472 ●충북: 043)271-1472 ●충남: 051)316-1472

### 신경질·허세등 성격적 결합에서 발병하기도 감초·밀·대추 달여먹으면 효과 있어

신 흥 목  
(한의학 대학과 교수)

히스테리는 한방에서 장조증(臟躁症)에 해당된다. 장조증은 부인이 슬퍼하여 울려고 하는 것이 귀신에 쫓기(?)인것 같다고 하였는데, 여자들에게 흔히 있는 심인성으로 인한 정신장애로서 지속적인 욕구불만, 억울한 감정, 우수, 불안, 지나친 사례, 결약 등의 정신적 감동이 원인 이 된다.

어의 Hysteria에서 유래된 것처럼, 환자의 80~90%가 여성이다. 장조증은 소질을 중히 여기는데, 소질이란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잘내며 허세부리기를 좋아하고 자기과시욕이 강한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의 관심을 사기위하여 화사한 복장이나 과장된 몸짓, 공상적인 거짓말을 하는 등 성격적 결합이 있는 자에게서 쉽게 발병한다.

이러한 증상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며 반복해서 발작한다. 특히 히스테리 발작은 심인성으로 인한 경미한 간질로서 남아 보이는 데서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앞에서 발작이 일어나고 쓰러져도 의식을 완전히 잃는 경우는 없으며 크게 다치지 않을 만한 안전한 곳을 택해서 발작한다.

###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 공통주제 히스테리

### 불안을 일으키는 외적상황이 주원인 신체질환 없어 해부학적 설명 불가능

성 낙 진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히스테리(Hysteria)는 자궁(uterus)을 의미하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된 말이다. 과거에는 히스테리가 병명이었으나, 최근에는 히스테리란 병명은 없으며, 지금은 주로 신체와 장애의 전환장애로 분류된다.

전환장애는, 해부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피부의 감각이상이나 이상운동, 마비등의 극적인 기능상실을 주증상으로 하는 장애이다. 실제 신체질환은 없고 심리적 갈등이 원인이다. 무의식의 과정으로 일어나기에 최소한 그 당시에는 환자는 심리적 원인을 모른다. 대부분이 여성에서 일어난다. 유전적 요인이 다소 인정된다. 프로이드는 억압된 성적충동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한 상환회피 등의 2차성 이익을 얻는다.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짧은 기간 뒤에 급작스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2차성 이익의 차단이 치료에 중요하다. 자주 재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성이 개방되고, 의학사상에 자유로워져서 2차성 이익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진단하기 어려운 동성이나 신체화 장애로 옮겨 가고 있다.

### ◇현대인의 환상주의

### 기계화 되어가는 사회속 인간은 환상주의 탐닉 컴퓨터 통한 '사이버 섹스'도 성행

히탈리우드 영화 '데몰리션'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범죄가 남발하는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동으로 변해, 서로 반쪽하는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은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건물을 파괴했다는 죄책으로 병동간간으로 만들어진다.

면에 등장한 사람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DS가 지구를 장악하게 될지 모르는 판에'라고 생각하면 장점이 아주 없지는 않지 않다.

이와같은 경향이 비단 만화방이라는 것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 오락에 눈을 높고있는 사람, 비디오방에서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람 등.

이렇듯 나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면 상대적 사물의 위치도 정립되고 이 정립된 서로의 위치에 따라 그에 조화로운 행위의 역량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 서로의 위치에 따라 역량이 정해질 수 있는 원리의 본체를 '인(仁)'이라 했고, 이 본체의 원리를 서로의 위치에 따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활용을 '서(禮)'라 했던 것이다.

### 달 하나 천 광 에

### 가까이에서 찾자



배움이란 어차피 물렸던 사실을 알아 가는 행위일 것이지만, 때로는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확인의 작업에는 스스로의 경험이나 실험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손쉽게 보편화된 방법은 스스로를 찾아 집의 응답으로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나일 것이다. 내가 나이면서 나를 모르고 있는나는 반문도 있을 법하지만, 기실 나의 존재의 분명한 확인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것이다. 나의 존재가 성립함으로써 해서 우리 삶의 주본이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알자는 일의 그 일 자체는 무엇인가. 이 알자는 행위의 주체인 나일 것이다. 내가 나이면서 나를 모르고 있는나는 반문도 있을 법하지만, 기실 나의 존재의 분명한 확인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것이다. 나의 존재가 성립함으로써 해서 우리 삶의 주본이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적 덕목은 '나'와 '남'의 어울림의 관계에서 그 사이의 조화점을 제시한 삶의 틀인 것이다. '나'가 전제되어 거기에 상대되는 '남'의 위치가 정해 지고 그에 상응하는 덕목이 규정된 것이다. 내가 자식일 때 남은 아버지이고 내 행위의 조화점이 바로 효이며, 내가 아버지일때 남은 아들이기에 내 행위의 덕목은 사랑인 것이다.

이렇듯 나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면 상대적 사물의 위치도 정립되고 이 정립된 서로의 위치에 따라 그에 조화로운 행위의 역량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 서로의 위치에 따라 역량이 정해질 수 있는 원리의 본체를 '인(仁)'이라 했고, 이 본체의 원리를 서로의 위치에 따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활용을 '서(禮)'라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경향이 비단 만화방이라는 것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 오락에 눈을 높고있는 사람, 비디오방에서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람 등.

이렇듯 나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면 상대적 사물의 위치도 정립되고 이 정립된 서로의 위치에 따라 그에 조화로운 행위의 역량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 서로의 위치에 따라 역량이 정해질 수 있는 원리의 본체를 '인(仁)'이라 했고, 이 본체의 원리를 서로의 위치에 따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활용을 '서(禮)'라 했던 것이다.

이 중 찬 문과대 국문과 교수

### 문화단신

#### 새로 나온 책

◇뱃발...기치촌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기위해 작가 안일순이 그녀들과 1년동안 함께 생활하고 쓴 소설이다. 윤금씨, 추모시를 창작받은 것이 소설을 쓰게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한다. 동두천, 송탄, 이태원등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기치촌에 들어선 여성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남자들의 폭력과 억압,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기획출판 공간미디어, 상하 각권 5천5백원.

◇시란 무엇인가...쉬운 시 가운데서 단란함을 뜻해 발견해내고 의미를 끌어낸 이화여대 유종호교수의 평론집이다. 많은 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이 시 이해의 첩경이며, 삶이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문학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음사, 8천원.

◇난 세상에 커피를 주었다...패션 디자이너인 '나'를 찾아온 알수없는 여자, 그녀는 남성인 '나'안에 들어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아의 이미지다. 일상을 벗어나려고 부추기는 그녀를 죽음으로 떠나가고 '나'는 또다시 권태속으로 빠진다. 극단 연우무대, 6월1일부터 7월2일까지, 혜화동 260-3523로 문의바람.

◇그여자의 소설...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의 삶을 그려낸 단순한 전통여인의 삶을 그리기보다 미래 후손들에게 들려줄 메시지를 담고있다. 남이선호사상에 대한 재진단의 계기가 될것이다. 극단 민예극장, 6월3일부터 15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 744-0686.

◇엘러라 비디오 5000...국내에 출시된 비디오중 서양영화 3천4백편, 한국영화 5백편, 동양영화 6백편, 만화영화 및 기타 5백편등 모두 5천편이 넘는 작품을 소장한 책이다. 짧은 평과 함께 결자부터 줄까지의 구분을 해놓았다. 도서출판 처림, 9천8백원.

◇반죽, 날개로 날아온 새...자신들을 고향에 데려다줄 트럭을 기다리고 있는 1945년 8월 간도 어느 군진영양에 서있는 정신대 여성들의 이야기다. 고향에 가더라도 따가운 눈초리와 수군거림이 두려워 귀향차에 오르지 못하는 불행한 인간들을 통해 해방의 뜻을 되새기자는 것이 기획의도. 극단한강, 6월1일부터 7월2일까지, 혜화동 강강술래 소극장, 747-7492.

###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5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접수와 같이 접수합니다.

### 다 음

- 대상: '95.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 자격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이 교육부에 제출된 자.
  -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가능한 자.
- 접수기간: '95. 6. 12(월) - 6. 14(수)까지
-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 단, 경주캠퍼스는 경주캠퍼스 교무과에서 접수함.

### 사 범 대 학 장

### '95후기 신입생모집

- 교육과정 및 모집인원
  - 가. 교육과정: 전자계산학 2년과정
  - 나. 모집인원: 400명(주, 야간)
- 응시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자
  - 나. 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 전형방법: 면접 및 서류전형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점 부여함
  - ① 전문대학 졸업학력 이상자
  - ② 산업체 근로자
  - ③ 기술계(기능계포함) 자격증 소지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및 사무관리계 자격증 소지자(대한상공회의소 발행)
-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및 사진(3cm×4cm) 3매
  -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다.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라.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5.6.19(월)~6.30(금) 09:00~18:00
  -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 교학과(동국대학교 혜화관 6층)
    - ☞ 유의사항
    - 우편교부 및 접수시는 수취인의 우편번호, 주소록 정확히 기재한 반송용 봉투와 등기우송료 및 원서대 2,000원, 전형료 20,000원을 전산환으로 동봉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형일시 및 장소
  - 가. 전형일시: '95. 7.4(화) 13:00
  - 나.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구체적 시험장소는 수험당일 게시함)
  - 다. 합격자 발표: '95.7.6(목) 본교계시관에 게시, 개별통지 않음.

### 전 자 계 산 원

### INTERNET 무료특강 안내

- 일 시: 1995년 6월 13일(화) 13:00-16:00
- 대 상: 교수, 직원, 대학원생, 일반학생
- 장 소: 전자계산원(혜화관)6층 시청각실
- 특강신청
  - 가. 기간: 1995년 6월 5일(월)-9일(금)
  - 나. 장소: 전자계산원(혜화관)6층 교학과
  - 다. 인원: 100명(선착순 신청순)
- 기타사항
  - 가. INTERNET특강교재 무료배부함.
  - 나. 특강시 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자계산원 교학과(260-3523)로 문의바람.

주최: DACOM 강남지점점(553-1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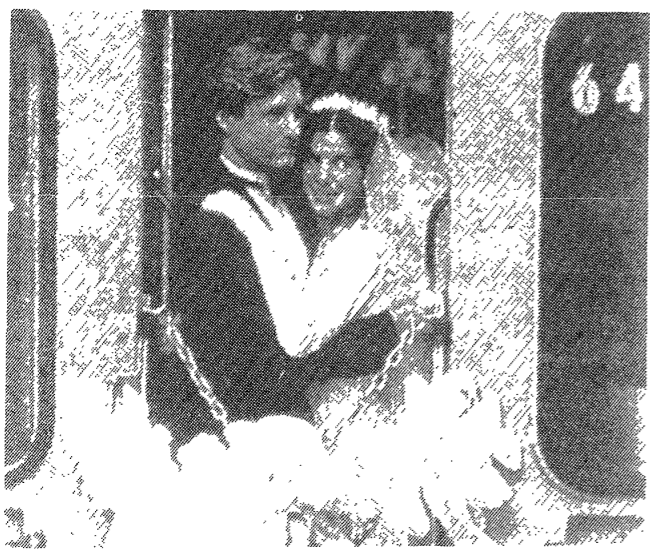
### 전 자 계 산 원



영화의 패러독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정신안정제 같은 가벼운 오락영화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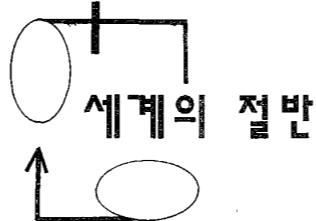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보면 대중 오락영화의 한 지점을 엿어낼 수 있다. 흔히 평론가들은 지적이고 고답적이거나 현실비판의식이 뛰어난 영화들만 골라서 특별한 가치, 교훈성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인양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론가들의 커다란 일중 하나는 대중의 위도, 아래도 아닌 바로 그 시각에서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며 문제 의식을 정확히 짚어내는 일이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적인 공식인 신데렐라 결혼 이야기와 코믹 펄로 장르를 혼합한 것이다. 여주인공의 어린 시절 내레이션에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루시(산

드라 블록)라는 인물이 꿈에 그리던 백마왕자를 만나는 우여곡절을 보여주고 있다. 루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도 없이 혼자 고양이와 살고 있다. 그녀는 지하철에서 토크를 받는 직원이네, 매일 지나치던 한 남자를 짝사랑하게 된다. 크리스마스날 그녀는 사고를 당한 그 남자를 구조하게 된다. 병원에 이송하고, 그의 가족들이 오고 그는 혼수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녀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던 일이 현실화되어 기뻐하지만 주위의 상황은 그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번 말도 건네보지 못한 그녀는 졸지에 약혼녀가 되었고, 상대방이 잠든 사이에 '그걸 변명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녀를 정작 사랑한 것은 환자의 동생이었다. 항상 형에게 열

등하다는 의식속에서 자라는 동생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마저도 형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루시와 동생과의 즐거운 만남들과 갈등이 전개된다. 그러면 중 결국 형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고 루시의 입장은 황당해져 버린다.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왔던 것은 모두가 오해였고 거짓이었던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모든 오해는 풀리고 루시는 형과 결혼할 듯 하다가 결국 동생과 결혼을 한다. 결혼이란 짝을 찾는 일이다. 루시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한다. 형은 이상적인 사람이고 동생은 현실적인 사람이다. 형이 '잠든 사이에' 동생은 자기를 지켜주었다. 루시의 짝이 누가 되어야 할지 관객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영화는 마지막까지 정반대로 가면서 애를 태웠던 것이다. 여주인공의 산드라 블록은 '스피드'에서의 강인한 면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선 뻔뻔하고 소탈하며 웃는 내내나 신성함을 보여준다. 그런 서민적인 이미지가 우리 관객들, 특히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가벼운 오락영화로서 꽤 성공한 상품이다. 이 영화에는 꿈이 있다. 우리들이 매일 꾸는 가족의 평안과 고독에서의 탈출과 사랑하는 감정 의욕이 한층 더, 경이로, 2배여명의 교수 명의의 상형서가 쏟아져 나왔다. 혼수상태의 이러한 비방에도 정부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통수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통신노조측도 거듭되는 강경방침에 대해 6월초부터는 준법투쟁의 강도를 좀더 높일 예정이다. ▲이제 이 사태 수습의 실마리는 단 하나이다. 의통수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의통수를 해제하는 것이다. 연이은 노조탄압과 편법은 국민들에게서 신뢰만 잃어갈 뿐이다. 의통수가 최상의 승부수였다면 혼수판도를 아무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또다른 수를 택함이 어떨지...



끝)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

개체의 특성·가치 인정하는

같은 정도 힘 행사할때 공존 가능

익명의 '그녀'를 사례로 6회에 걸쳐 괴력한 여성주의 연구 '조화로운 공존'으로 끝내면서 나는 상반된 감정을 느낀다. 안도감과 우려, 그녀의 행복한 결말이 우리나라 여성주의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듯해서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 조화로운 공존으로 결론짓는다는 것이 너무 상부적 혹은 단편적이지 않나 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다.

주위의 비난과 몰이해, 그리고 자신과 끝없는 싸움으로 인해 자칫 지리한 소모전이 될 뻔한 그녀의 반란은 실제로 화해와 재결합이란 낭만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그녀는 가족과 재회했고 원하던 대로 마음껏 글도 썼고, 폭넓은 사회생활도

했다. 간혹 늦게 귀가할 때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거나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는 적도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의 억압과 병적 상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마치 여성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남녀의 이상적인 결합을 표상하는 듯했다. 이렇게 공존으로 결론짓는다는 것이 너무 상부적 혹은 단편적이지 않나 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슬기롭게 도취되기에 앞서 과연 현실적으로 '조화로운 공존'이란 가능한가? 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여성주의의 한계를 치열한 이론화 대신 상상적 유토피아(imaginary Utopia)로 환원하는 점을 들 수 있듯이 그녀의 경

우를 아무런 감동없는 조화로운 결합으로 결론짓는다면 자칫 실재성(reality)을 상실한 유토피아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요란스런 반란은 어느날 '뜻하지 않게' 찾아온 남편을 따라 '예상으로 순순히' 가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내가 굳이 '예상으로 순순히'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가솔이란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기까지 그녀가 받았던 정신적 물리적 억압의 무게와 가솔 이후 사생활에서 풀리는 비난을 견뎌내면서 끝내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고자 했던 놀랄만한 용기에 비해 너무나 쉽게 투쟁을 포기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포기라 아니라 냉정과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일련의 드라마가 펼쳐진 끝에 성사된 타협이었을 것이다. 후에 그녀로부터 들은 화해의 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이 사회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견상 자기반성과 각성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져 극적인 전환을 맞이한 듯 한 그녀의 예외성은 다음과 같이 박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그것은 극적 전환을 촉진시킨 실제 이유가 두사람의 현실적인 결핍과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녀 남편의 경우 만약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면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기치 않게' '생각보다 빨리' 용서와 화해를 구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녀가 가솔한 후 아이들과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 시던 시어머니가 파로로 몸져 누우 시자 그녀의 남편은 보모를 구하려 때때로 출근을 포기해왔고 어렵사리 구한 보모마저 그만두는 사례가 잦은가하면 그 비용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육아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녀의 남편은 처음에 그녀가 차렸던 처지를 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그녀의 경우 그토록 원하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또다른 억압과 압박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예상으로 순순히' 타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한 예로 박찬 가슴을 안고 출근하는 출판사에서 그녀는 첫날부터 편집장과 제목 정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었다. 처음부터 조짐이 이상했던 그 출판사는 도대체 시간관념이 없고 있어서 그녀가 퇴근시간에 맞추어 귀가한 적이 거의 한번도 없었다. 게다가 월급을 제때에 주는 정도 없는 것이었다. 항의를 하는 그녀에게 출판사 측은 경험부족을 이유로 해고장을 보냈다. 몇년간의 유배 끝에 사회에 발을 내딛던 그녀가 발을 삼켜는 남편을 비롯한 주변인물과의 마찰에서 받은 어떤 상처보다 깊었다. 그렇게하여 그녀는 남편이 생존을 위해 아첨수없이 탐탁고있는 사회구조의 본상을 알게되었고 그러한 압과 이해 속에서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남편의 자기반성과 그녀의 자각은 실질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좌절이라는 조건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면 가능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좀더 오랜 시일을 요했을지도 모른다. 삶의 현장은 대립과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유토피아가 아닌 것이다. 그런 곳에서 각 개체의 특성과 가치를 서로 온전하게 인정하는 달리 말해서 힘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같은 정도의 힘을 각 개체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하는 '조화로운 공존'이란 가능한가? 아마 사회적인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지 모른다. 그러나 자발적이지는 않더라도 흐린 경험 후 뒤늦게나마 반성적인 태도로 타자(여성이자 남성)를 인격체로서 배려한다면 분명 불안정하나마 그것 '조화로운 공존'은 가능하지 않을까.

김애주 (문과대 영문과 강사)

대학 문화

⑦ 대자보 문화

하얀 전지에 색색의 때지이나 물감으로 색어린 대자보가 빈틈없이 붙어있는 것은 아마도 대학이란 곳 외엔 그리 많지 않은 듯 싶다.

처음 새내기들이 대학의 문을 들어서며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대자보일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바로 이런 곳! 대학이란 곳! 구나'하고 실감할 수도 있다.

동문회, 동아리들의 모든 알림, 개인 또는 조직의 입장 표명 등 갖가지 표현들을 하고 심지어 대자보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자유분방한 의사표현은 대학이란 자유스런 공간 외엔 쉽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허용돼있는 우리나라인 하지만.

여기서 잠시 대자보의 유래를 이야기하자면,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옛날 언론이 발달하지 못한 중국에서 큰 종이 에다 글을 써서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여 알린 데서 대자보는 비롯됐다.

그럼, 현재의 경우를 한층 더 자세히 대자보의 현 상태를 보면, 그저 동문회나 동아리 등의 알림 공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한 행사일정표의 그것도 시일이 지난 자료가 보기 싫게 휘날리는 것은 자보수거일에 맞춰 제때 떼어내도록 하고 좀 더 읽을만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자보를 붙이기가 요구된다.

또한 대자보를 붙이기 지켜서서 보는 무던함을 보이지, 수업 시간에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 대학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듯하다.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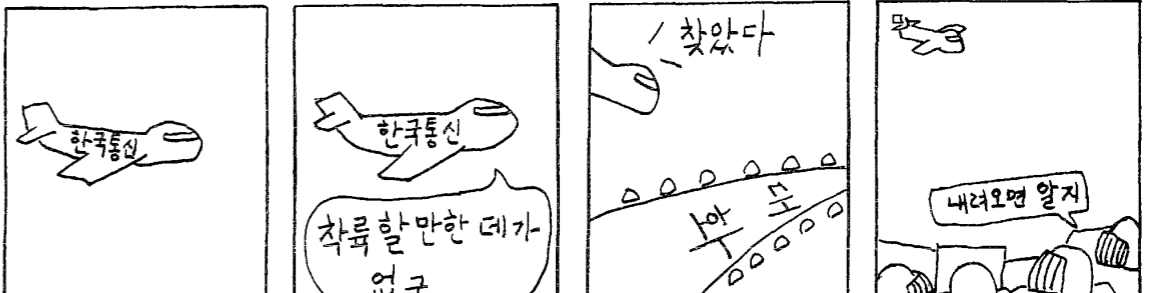
메이리

외통수

를 구속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노조 간부 검거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한국통신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결코 협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통신 사태는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국가 통신망을 불모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통신노조 사태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에 대해 이미 민주노총이 연대투쟁을 해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한총련, 경실련, 2배여명의 교수 명의의 상형서가 쏟아져 나왔다. 혼수상태의 이러한 비방에도 정부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통수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통신노조측도 거듭되는 강경방침에 대해 6월초부터는 준법투쟁의 강도를 좀더 높일 예정이다. ▲이제 이 사태 수습의 실마리는 단 하나이다. 의통수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의통수를 해제하는 것이다. 연이은 노조탄압과 편법은 국민들에게서 신뢰만 잃어갈 뿐이다. 의통수가 최상의 승부수였다면 혼수판도를 아무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또다른 수를 택함이 어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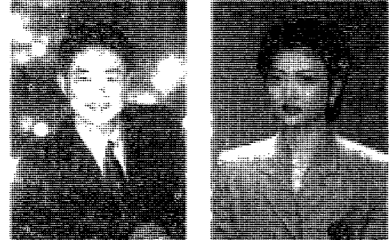
서승현 (13)



SBS 서울방송

“당신의 젊음을 생동하는 SBS와 함께”

SBS와 함께 21세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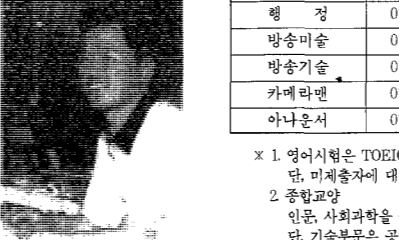
신용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보도국 편집부 기자 '출발! 모험왕' 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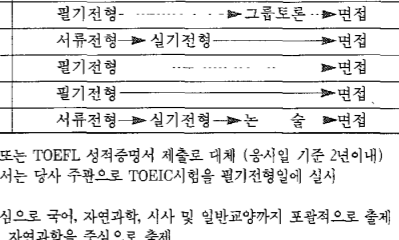
한수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보도국 문화과학부 기자 'SBS 8 뉴스' 앵커



손석기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원성국 이나문사무장 SBS 뉴스 앵커 스포츠 캐스터



이정수 인하대 토목공학과 졸업 TV제작국 PD '월드뉴스나이트' 연출 '웃을 거는 사람들'로 휴스턴 국제영화제 특별상 수상



유현관 한양대 전자공학과 졸업 기술국 TV기술2부 TD '까치네! 기술감독' '영사 5' 기술감독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방송기표로 새로운 방송문화 정착에 앞장서 온 SBS는 21세기를 함께 열어갈 젊은 인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중 최초로 신입사원 전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SBS는 전형방법을 과감히 변경하여 영어시험을 TOEIC/TOEFL 점수제출로 대체하고 종합교양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방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도전적인 열정으로 세시대를 SBS와 함께 열어갈 방송지망생들을 위하여 주요 채용계획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지망생들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원	모	집	전	차	필기시험과목		
기	과	00명	필기전형	→	실기전형	→	그룹토론 → 면접	(영어)
P	D	00명	필기전형	→	그룹토론 → 면접	→	면접	종합교양 논술
행	경	0명	필기전형	→	그룹토론 → 면접	→	면접	
방송	미술	0명	서류전형	→	실기전형	→	면접	
방송	기술	0명	필기전형	→	→	→	면접	(영어)
카	데	0명	필기전형	→	→	→	면접	종합교양
아	나	0명	서류전형	→	실기전형	→	→	면접

- × 1. 영어시험은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제출로 대체 (응시인 기준 2년 이내)
- ※ 미비출자에 대해서는 당사 우편으로 TOEIC시험을 필기전형일에 실시
- 2. 종합교양 인문,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국어, 자연과학, 시사 및 인문교양과목 포함적으로 출제
- ※ 기술부문은 공학,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출제
- 3. 논술은 해당부문 면접대상자에 한해 별도 실시
- 4. 방송미술, 아나운서를 제외한 타부문도 필기전형장소의 수험생대상 서류전형 실시할 수 있음

모집예정시기 9월 초순  
사전설명회 개최  
개최시기 및 장소 : 1995. 7. 4 (火) 10:00 ~ SBS 동촌동 중개홀 (전화 02-620-1600)  
참석대상 : SBS 입사지원서 접수 (제한없음)

- 합격사항
1. 구체적인 모집요강 등은 추후 공개모집시 SBS방송을 통해 공고예정
  2. 제2외국어(일본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특기자 우대
  - 인문분야 : 인문문화원 주관 인문능력시험 1급 또는 JPT시험 850점 이상
  - 독어분야 : 독일문화원 주관 ZMF 이상
  - 불어분야 : 프랑스 최후성 주관 알리앙스 프랑세즈 대학 D.E.F. A5 이상
  - 중국어 : 중국대사관 한어수평능력고시(HSK) 중급 이상
  3. 문의처 SBS 인사부 (전화 02-368-1121~9)

◎ 최종합격자 전원 2주간 미주 및 구주지역 해외연수